

# 광주·전남 행정통합 ‘후폭풍’…지방선거판 흔들다

문인 북구청장, 행정통합 중대 시기 구정 공백 이유로 사퇴 철회

입지자들 “유권자에 대한 약속 위반” 반발…북구청장 선거 파장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혔던 문인 북구청장이 행정통합 국면에서 구청장 역할을 맡을 내세워 ‘사퇴’를 철회하자, 북구청장 선거에 나설 예비 주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은 전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광주와 전남은 지금 시·도통합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며 “논의가 본격화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구청장의 공백은 자칫 구민의 목소리를 소외시키고 지역의 추진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사퇴 철회 배경을 밝혔다.

당초 문 청장은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8일 사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상황이 급변하자 구정 공백을 우려해 사퇴를 유보했다.

문 청장은 “개인의 목적이나 진로보다 시·도통합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우선 매진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에 밝힌 사임 결정을 철회하

고 행정통합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청장의 결단은 곧바로 북구청장 입지자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문 청장의 사퇴를 전제로 표발을 다져온 북구청장 입지자들은 ‘유권자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의원 출신인 문상필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청장은 지난달 말 이미 사퇴 통지서를 제출했고 북구의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수리했다”며 “구청장 한 사람의 변덕 때문에 구정이 법적 공방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도통합은 광주·전남의 백년대계이지 한 정치인의 거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소모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성 당대표 특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퇴 철회는 단순한 판단 변경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선택”이라며 “북구청장 자리는 출마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되돌아오고, 계산이 어긋나면 다시 불잡을 수 있는 개인 정치의 보험이나 안전장치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정다는 광주시의원도 SNS에 손글씨로 쓴 메시지를 올려 “행정 최고 책임자의 말과 행동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하며 새털처럼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청정당당 정다는”이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우회적으로 문 청장의 행보가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문 청장의 결정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승중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성명을 통해 “집안에 큰 변고가 있을 때는 외출했던 사람도 돌아와 일을 수습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 지극히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라며 문 청장을 감쌌다.

그는 “북구 공동체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3선 선언 이후에 비난해도 충분하다”며 “본인들의 입지 강화를 위한 무분별한 의사표시는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문 청장의 이번 결정으로 북구청장 선거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문 청장이 다시 등판할 경우 선거 판세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이슈가 뜻하지 않게 기초단체장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문 청장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문학당서 고사성어 쉽게 배워요” 8일 오후 광주 동구 인문학당에서 열린 ‘2025 겨울방학 프로그램 - 알자, 쓰자 고사성어’에 참여한 지역 초·중학생들이 훈장과 함께 고사성어 책을 들어 보이며 밝게 웃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도, 솔라시도에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 구축 박차

한전KDN·해남군 등과 협약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추진

전남도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집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8일 한전KDN과 해남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과 함께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AI-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상형 한전 KDN 사장, 명현관 해남군수, 김대환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남군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에

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에너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민간에 공유함으로써 AI-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생산·소비·계통·저장 등 주요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AI 분석·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인프라는 에너지 AI 서비스 개발, 신산업 실증, 데이터 기반 기업 육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한전KDN과 협업체 에너지-데이터센터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구축, 실증사업 패키지 발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비롯, 오픈AI-SK 공동 글로벌 데이터센터, 장성파인 데이터센터 등을 연계한 기능별 특화 ‘전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남이 세계적 AI-에너지 신산업과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기업 지원, 실증사업 패키지까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9억달러 ‘신기록’

김 4억 3170만 달러…전체 수출액 47.9% 차지

지난해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9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15.4% 증가한 9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남 농수산물식품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관세 이슈와 고물가 등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 전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6% 신장한 반면, 전남은 15%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남의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5억 6000만달러→2022년 5억 6200만달러→2023년 6억 3000만달러→2024년 7억 8000만달러에 이어 9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K푸드의 대표주자인 김이었다. 김은 지난해 4억 3170만달러의 수출고를 올렸는데 이는 전체 수출액의 47.9%였다. 이어 쌀 6600만4000만 달러(7.2%), 전복 4100만 9000달러(4.7%), 미역 2400만 7000달러

(2.7%), 배 1900만 5000달러(2.2%) 순이었다.

전남 농수산물식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나라는 일본으로 전체의 23%였다. 이어 미국(20%), 중국(25%), 대만(5%), 러시아(5%) 등이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336에 달하는 전남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고물 개제물을 중국으로 판매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해외 시장개척단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이 수출 중대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전남도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10억 달러로 잡고, 동남아 유럽시장 등 판매처를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을 육성하는 등 지역 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 “청년 인건비 90% 지원해 드려요”

16일까지 ‘일경험 드림터’ 모집…1인당 최대 240만원 채용 장려금

광주시가 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생생한 직무 현장 경험을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참여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동참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광주시는 오는 16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터(제19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첫 맛을 올린 이래 9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사업은 청년들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실제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가교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광주 관내를 비롯해 나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함평 빛그린국가산단 등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벤처·창업기업이나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 등은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면 문이 열려 있다.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닌 기업 고유의 특성을 살린 양질의 직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드림터)은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 기간 광주시는 참여 청년 인건비의 90%를 시비로 지원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걱정 없이 우수 인재를 미리 발굴하고 실무 능력을 검증할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특히 프로그램 종료 후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채용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단기적인 직무 체험을 넘어 실질적인 고용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와 현장 실사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참여 업체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운숙 시 청년정책과장은 “일경험 드림 사업은 청년에게는 도전과 성장의 발판을, 기업에는 미래를 함께할 인재를 선점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지역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뜻 있는 건설한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행정 조직 개편

시도통합·군 공항 이전 대비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의 운명을 가를 거대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 조직을 정비했다.

광주시는 ‘부강한 광주·전남 원년’ 실현을 목표로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의 신설이다. 지난 5일 임시 조직으로 맞을 올린 추진기획단을 정식 직제화한 것으로, 3급 국장급 기구로 격상됐다.

군 공항 이전 문제의 매듭을 짓기 위해 ‘통합공항 미래도시본부’도 새롭게 문을 연다.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전담 기구인 ‘5·18 50주년 기획단’도 출범한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는 ‘시스템통합팀’을 신설, 도목 공사 이후 진행될 전기·통신·신호 등 복합 공정을 조율한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대응력도 촘촘해진다. 건강위생과에 ‘자살예방팀’을 신설해 맞춤형 생명 존중 정책을 펼치고, 119종합상황실과 일선 소방서 인력을 확충해 재난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블랙야크 알파인클럽

핸드폰 GPS 인증

정상 100m 반경에 접근하여 사진 촬영 (발도장 확인(인종하기) 화면에 자동으로 등 GPS 인증하기 버튼 누르고 사진 등록)

핸드폰 지도 가능

내가 다녀온 산 내가 가아할 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정산100, 백두대산, 황산100, 성악산100, 낙동강맥, 인북정맥)

다회 인증 가능

내가 자주 찾는 산 셀린지 마다 인증 (1월 2회 이상 인증 가능)

합성지표 프로그램!

BAC 코인 적립

인증 시 산 높이만큼 BAC 코인으로 지급

HIMA DOWN

블랙야크 광주상무점은 2013년부터 명산100 도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상무점 : 062-384-1811

광주아울렛점 : 062-372-0800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블랙야크 광주상무점)